

복제약, 리베이트 관행 부추긴다!

중소 제약기업까지 리베이트 경쟁 합세 ... 가격은 신약의 80-90%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1년간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의약분업 직후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구설수에 오른 기업들은 외국계 제약기업이나 일부 국내 제약기업들에 국한했으나 최근에는 중소 제약기업까지 리베이트 경쟁에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복제약이 수십개씩 동시다발로 출시되면서 약효 보다는 <돈질>로 시장선점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약업 전문가들이 관측이다.

성분이 같은 복제약끼리는 약효가 비슷하기 때문에 병의원이 어떤 약물을 선택하느냐에 리베이트의 영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제약 출시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신약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과정이 극도로 까다로워진 반면, 복제약은 개발이 쉽고 가격도 높아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감사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신약이 높은 개발비와 해외 시장가격 등을 반영해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 신약의 80-90%에 이르는 복제약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처음 시장에 출시되는 복제약 퍼스트 제너릭은 신약의 85%에 해당하는 약값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퍼스트 제너릭에 해당하는 복제약이 성분당 많게는 100여종에 이른다는 점이다.

모두 신약의 85%나 되는 높은 약값으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당뇨병치료제 아마릴(성분명: 글리메피리드)의 최고가 복제약은 89종이나 되며 진통제 울트라셋(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염산트라마돌)은 67종이나 된다.

자체 합성한 원료를 사용하는 데 주어지는 약값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신약 가격의 80% 이상 되는 약값을 받은 약물의 수는 더 늘어난다.

동시다발로 출시돼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발전기금 제공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관계자 역시 “수십 개의 복제약에 신약의 80% 이상의 가격이 매겨지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다국적 제약기업의 교묘한 불공정행위는 적발하지 못하고 쉽게 드러나는 국내 제약기업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도 제약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해외 법인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로비는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복제약 뿐만 아니라 신약 판촉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약업계에만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위권 제약기업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기업들도 여전히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받는 쪽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8>